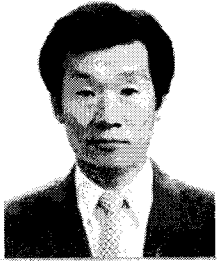


뜻이 있었으니 길(道)이 나아 하지 않을까

-재야 한글학자 최햇빛님의 새벽돌비를 세우면서



김윤근

신라문화동인회 회장

살아 당시 부와 권력으로 주목받던 자들도 떠나고 나면 잊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도 직위도 갖지 못하다 떠났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사람도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일의 건강함을 위해 지난 날을 평가해 잘못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옳은 삶의 자취는 기리고 칭찬하여, 삶의 참다운 가치 기준을 모르고 허둥대는 우리들의 마음을 제자리에 앉히고 들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거울로 삼고자 함이다.

고 최햇빛님은 남천가 양지마을과 마주하는 곳 마을 이름이 음침하다 하여 '음지마을'을 '해맞이마을'로 고쳐 부르는 곳에 사셨던 재야한글 운동가다.

"지난 한글날 햇빛할아버지 뵈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국어 운동하시는 사람 가운데 한분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직접 말씀 듣고 무척 감동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더 힘찬 할아버지 말씀은 저

희들에게 한글사랑과 겨레사랑의 정신을 한층 더 깨끗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어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내말 내 글을 업신여기고 외래말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깊이 일깨워주시시오" 라는 예랑님의 염원처럼 많은 분들이 존경했던 최햇빛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임은 1910년 7월5일 경주 인왕동에서 태어나 2000년 10월30일 노환으로 돌아가실 때 까지 많은 이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한글운동가였지만 한글 사랑으로 민족의 얼을 바르게 심는데 일생을 바치고 고귀한 삶을 사셨던 거룩한 분이셨다.

한학을 공부하시다 좀 늦게 계림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식민교육에 분노를 느끼고 자퇴한 것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익힌 한글지식과 열정은 어느 전문 학자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초등학교 시절 일어 사용을 강요하는 일본인 교사에게 "어떤 말이나 소리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훌륭한 우리말이 있는데 어째서 그렇지 못한 당신들 말을 써야 하는가?" 라고 따질 만큼 민족의식도 투철하신 분이셨다.

젊은 시절 '한글소설독서회'를 결성하여 마을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이 모임

은 일본의 한국문화 말살정책에 맞서는 민족독립운동으로 간주되어 회원들은 줄줄이 잡혀 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임은 그때부터 도피생활이 시작되었고 황량한 만주벌판을 방랑하면서 민족정기를 일깨우는데 전력을 다하셨다.

그 후 무성영화의 번사로 우리말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실천하시며 우리글의 아름다움을 펼치고자 노력하셨는데 66년이나 아껴 부르던 최철규란 자신 이름을 최햇빛으로 고쳐 한글운동이 햇빛처럼 퍼지기를 바랐다. 험난한 길의 동반자 부인은 고친 이듬처럼 살지는 못하셨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아 포근해 지라고 김난순을 김포근이라고 고치고 자식들 이름도 한울, 힘찬울, 은솜, 새솔, 아름, 고은 등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도 모두 고쳐 불렀다.

더욱 나아가 마을 이름 고치기와 상용말 고치기를 나라와 단체에 수없이 건의하고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남기셨다.

'음지'가 '해맞이'로 '문천'이 '반달'로 '구역'이 '밝은' 마을로 바뀌고 '황용사지'가 '황용사터'로 '감사하다'가 '고맙다'로 '귀하'가 '님'으로 '대축제'가 '큰잔치'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

주례 답례는 아이 낳으면 한글이름 짓는 것으로 하고 전국 수많은 특강을 통해 한글운동을 펼쳤는데 1980년부터 경

주 '한글물결모임'을 지도하여 길러진 제자들이 교단과 언론계에서 지금도 크게 활동하고 있다.

임은 초라한 단칸오두막에서 마을 생필품 구멍가게로 생계를 꾸려가셨는데 노구에 힘겨운 짐자전거에 배달 물건을 잔뜩 싣고 잡아 맨 고무줄 사이로 빈 상자 와 빈병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끔찍하였다. 이는 길 가시다 폐품을 주워 가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외래 문물이 흘러 넘쳐 우리가 누구인가를 구분하기조차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때, 임의 정신과 삶의 실천모습이 가슴 저리고 눈물겹도록 그리운 제자들이 뜻을 모아 임의 혼이 깃던 고운 터에 임을 기리는 돌비를 세우려 한다.

돌비에 새길 글은 뭇사람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최선생이 하는 일은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다 이제 마그만 하소" 하실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밤길도 오래 걷다 보면 새벽을 맞이한다."로 정했다.

뜻이 있었으니 길이 나아 하지 않을까? 삶의 자취가 문화가 되고 문화는 역사가 기록된다. 그 역사의 가치, 평가는 산자의 몫이다.

※시론의 주장은 서라벌신문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